

# 『 동북아시아의 평화실현에 가는 길 』

NPO 법인 삼천리철도 묘목지원 및 식수사업보고  
 이소가이 지로씨 (부이사장)중부 펜클럽문학상수상 기념인사  
**기념강연 강 상중 씨 (도쿄대학 교수 정치학)**

연대인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성우공동의장

4 21 ,

이것에 앞장서 19 일, 삼천리철도  
 는, 남측민화협에, 묘목구입  
 1000 만원을 전달했다.

남측민화협은, 북측민화협의 요청  
 을 받고, 개성시에서 「묘목지원 및  
 남북공동식수사업」을 갖지만, 남  
 쪽민화협의 요청을 받은 삼천리철  
 도도, 이사장이하 3 명이 참가했다.

참가자는 버스 3 대에 분승하고,  
 육로 남측 『출입사무소』에서 『출  
 경』수속을 취하고, 군사경계선을  
 넘고, 개성으로 . 이번의  
 묘목지원은, 잣나무, 소나무, 느티  
 나무 맞추어 18 .



가,  
 수상작은 『탄알의 행방』 .  
 재일조선인의 살음을 그리는 것을  
 라이프워크로 해 온 씨는,또, 재일  
 조선인문학 평론의 제일인자이기  
 도 .

노무현대통령은 25 일, 일본에 의  
 한 동해배타적 경제수역(EEZ)해양  
 조사 추진에 관련된 한일관계 특별  
 담화로, 「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  
 교과서왜곡, 야스쿠니신사 참배문  
 제와 함께, 한일 양국의 과거의 청  
 산과 역사인식, 자주독립의 역사와

1950년 8월 구마모토현에 태어난다  
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졸업  
 도쿄대학원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수로  
 독일 에아란겐대학 유학  
 국제 리스도쿄대학 준교수  
 현재 도쿄대학 정보학연구소  
 주된 저서  
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목표로 해  
 재일-들의 『조국』에의 생각



주권수호의 수준으로 정면에서 다루어 간  
 다」라고 밝혔다.

이것에 대하여, 아소우외무장관은 「지방  
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자고 하는 국내용  
 담화가 아닐까」와의 담화를 발표, 한일 관  
 계는 극도한 긴장을 나타내고 있다.

한편, 초일관계에 있어서도, 조선측이 해  
 결됐다 하는 납치사건을, 일본정부측은 미  
 해결이라고 해서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  
 로 하는등, 고착상태에 빠지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삼천리철도는 「동북아  
 시아의 평화」를 키워드로 한 저작 언론활  
 동을 활발히되어 있는, 강상중씨에게, 이번  
 의 강연을 의뢰했다.

6 월 11 일(일) 오후 3시반 개장  
 오후 4 시 개장

名進研 3층

〒451-0045 西区名駅2-34-19 ( 1階 CAFÉ DE CRIE)  
 JR名古屋駅下車徒歩 5分 TEL : 052-582-2003

참가비용:1,000엔 (학생500엔)

주최:NPO법인 삼천리철도

후원: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현본부  
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아이치현본부  
 재일 한국민주당일연합 도카이본부  
 재일 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

6.15

